

문화광장



김 정 호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불교에서 인연법은 천지 만물이 있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며,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그러려면 전생에 500점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 하물며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저 큰 바위가 모래가 될 세월 동안 인연의 결과다.

‘구르는 수레바퀴’ (2019)에서 등장인물인 배우 김준배가 출연한다. 배우 김준배가 출연한다. 배우 김준배가 출연한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500점의 인연보다 깊다

서울에 큰 절 주지 스님으로 성장한 도법 스님의 문중 만상좌 혜진은 주지 스님 선거 운동 기간의 바쁜 와중에 도법의 행자로부터 도법이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고 도법을 찾아뵙러 간다. 도법의 문중에는, 속세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보듯이 다양한 상좌 스님들이 있다. 개고기와 술을 먹고, 보살과 불륜관계인 둘째 상좌 혜진은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의 말썽꾸러기와 같다. ‘악인은 너무 많다’ (2011)에서 주연을 맡았고, 주로 조연으로 악당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 김준배가 출연한다. 셋째 혜운은 봉안당 사업 등 불사를 열심히 하면서 보살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넷째 혜승은 서울대와 하버드를 나온 SNS 스타이며 작가인 스님으로 비트코인 투자 등 속세의 이재에도 밝다. 열댓 보면 불교계를 풍자하고 고

발하는 듯한 영화이나, 사실은 불가의 삶도 속세의 삶과 닮은 구석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네 명의 상좌들은 도법스님이 과거의 천지를 호령하던 큰 스님이 아니라 치매와 중풍으로 육신의 고통에 시달리는 병든 노인이 됐음을 보게 된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모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만상좌가 잘 모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 등 서로 원망하기도 하고, 도법 스님이 남기게 될 문중의 토지를 어떻게 할지, ‘행자가 아니면 도법을 모실 분이 없으니 그에게 잘하자’ 등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야기의 다른 한 축은 만상좌 혜진이 어린 동자승에서 한 명의 홀로선 스님이 되기까지의 도법 스님과 그의 관계에 대한 회상으로 이뤄진다. 어린 동자승에게 어머니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해 준 강릉 보살과의 인연도 있다. 도법은 이들 상좌를 사

대천왕이라고 하며, 밥을 안 주며 배가 고프다고 하기도 하고, 도리천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다. 도리천은 불교에서 세계의 중심에 있는 수미산에 있는 천상계로 고타마 붓다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이 죽은 뒤 다시 태어난 곳이다. 진제와 속제, 깨달음의 관점에서 진리와 세상에서 체감되는 일반적인 진리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이 영화는 코로나 시기인 2020년에 개봉됐으나,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문정운 감독이 오래전, 시나리오 작업자 머물던 절에서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 ‘바보 선인’ (1983)과 ‘서편제’ (1993)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2006년 문화관광부장관을 역임한 김명근 배우가 혜진 스님으로서 열연을 보여준다. 속세에서 영화 속 상황과 유사한 처지에 있다 보니 영화가 가슴에 와닿는다.

열린마당

과적은 운전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부 호 심
제주도 도로관리과

화물차 과적이란 법령에서 정한 차량 중량 기준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적 차량은 제동거리를 늘리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도로와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동안 과적 단속은 대부분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화주나 운송사업자의 운행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러한 구조는 실질적인 책임과 법적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개정으로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운전자만 타인의 지시나 관리 감독 아래 과적 운행을 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화주·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 등 실질적인 위반 행위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적 단속 대상은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하거나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한 차량이다. 위반 시에는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개정된 기준을 반영해 단속한 판성 및 축중기 등을 가동해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이 공정한 운송문화와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산림의 가치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

제주도, 산림분야 우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2025년 실적)에서 6년 연속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데 이어 산림청이 실시한 산림분야 평가에서도 우수 광역·특별자치도로 선정. 제주도는 산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림분야 평가지표를 충실히 이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6월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산림청장 표창과 포상을 수상. 임흥철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와 녹색공간 확충에 힘쓰겠다”고 강조.

중문동 ‘무료 건축상담실’

○…서귀포시 중문동이 주민들의 건축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연고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건축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 이를 통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위반 건축물을 사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지역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문화 확산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임정순 중문동장은 “건축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상담이 중요하다”며 “지역 연고 건축사들의 뜻깊은 재능기부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

사설

민선 9기 도정 첫 조직개편, 성과로 답해야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첫 조직개편에 나선다. 인공지능과 민생경제 등 핵심 공약을 실행할 조직 체계를 꾸리는데 방점을 뒀다. 제주도는 본청 조직을 기존 16실·국 68과에서 15실·국 70과 체제로 재편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주목되는 것은 정부부지사 명칭이 12년 만에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바뀐다. 기후경제정무부지사는 미래산업국,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을 관장 회추진단이 신설돼 주거, 의료, 교통, 에너지 등 기본사회복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성장 중심으로 재편된다.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소통담당관이 신설

되고 갈등관리도 맡는다. 게다가 제주브랜드담당관이 신설돼 제주 브랜드 전략과 마케팅을 추진한다.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을 풀기 위해 공항확충지원과는 제2공항상생지원단으로 승격 배치된다. 제주공항 등 기존 항공정책업무는 교통환경국 산하 교통항공정책과가 맡는다. 이번 개편에서는 특별자치분권추진단과 15분도시추진단이 폐지된다.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새정부경제추진단도 폐지된다. 민선 9기 도정의 첫 조직개편은 위성곤 지사의 핵심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조직개편은 명칭과 간판만 바꾸는 선에서 끝나는 안 된다. 결과와 성과로 도민에게 답해야 한다. 민생경제 회복과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것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올리는 ‘노쇼 사기’ 엄정 대응 시급

제주지역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한 악성 ‘노쇼(No-Show)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지역 경제의 깊은 시름을 더하고 있다. 단체예약을 발미로 횡집 등 자영업자들에게 주류 구매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해 공문서를 위조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한 후 선구매나 입금 시 연락을 끊고 잠적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가뜰이나 내수 침체로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에게 벌어지는 이러한 범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검거율은 극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노쇼 사기’ 조직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지능적이고 음성화된 범행 특성 탓에 피해 구제는커녕 범인 특정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현행 통

신사기피해환급법이 ‘노쇼 사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계좌 지급정지조차 어려운 것이 뼈아픈 현실이다. 소상공인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악질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절실하다. ‘노쇼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해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사 당국은 전담팀을 강화해 추적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사칭 범죄에 대한 예방 홍보를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선입금, 대량 주문, 대리구매의 경우 반드시 해당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치는 등 스스로도 사기피해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영인

2009 백도라지 영인

목성콜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홀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